

거울의 원리

어떤 유대인이 물었습니다.

“랍비님!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가난한 사람들은 하
나가 되어 서로 도와주며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면서도
서로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”

랍비가 말했습니다.

“창 밖을 보십시오. 무엇이 보입니까?”

물어 본 이가 대답하였습니다.

“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군요. 그리고 시장으로 자동차
한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”

랍비가 말했습니다.

“그렇지요. 이제 벽에 있는 거울을 보세요. 무엇이 보입니까?”

“제 얼굴 밖에 안 보이는데요.”

랍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.

“그렇지요. 거울이나 창이나 모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다 은칠을
하면 자기만 보이는 법입니다. 귀중품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법이
지요.”